

블랭크: 전시를 진행하며 아티스트로서 작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이어온 작업은 그동안 어떠한 변화와 함께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정승일: 미술을 처음 시작할 때,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미술은 할수록 어렵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 이기에 조심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미지는 다른 요소보다 마음과 생각 속에 깊고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이죠. 무책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아요. 미술가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제시하는, 즉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들을 다듬어내고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산해 낸 이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우연히 든 생각, 떠오른 이미지들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흥미롭거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일 때 작업에 옮기곤 합니다. 한 가지 작업을 생각해서 진행하다가도 별로 감흥이 없겠다 싶으면 곧 다른 작업을 구상합니다. 저에게 흥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식상하거나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될 테니까요. 작업이 발전되는 것은 그 생각의 층이 쌓여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고민할수록, 지혜가 늘어갈수록 더 발전되어가겠지요.

블랭크: 형태 자체로 조형물의 성격을 가지는 운동기구들, 선과 색을 통한 이미지의 면 분할을 나타내는 트랙, 그리고 공간을 가로지르며 중첩되는 철 구조물이 나타내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정승일: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진작업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 사진에서는 사물 본래의 상징과 역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사진에 있는 운동기구나 트랙, 파이프들은 그 본래의 쓰임새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미지 자체가 작업이 되는 거예요. 대상을 이전과는 다른 맥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사진작업들에서 제가 개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의 면을 제 시각으로 구성한 것이지요.

블랭크: 그중 <기구들> 연작은 다른 두 가지의 시리즈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대상이고 흑백으로 촬영되었는데, 관련한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승일: 사진 촬영을 하며 다니던 중에 한 장소에 일렬로 나열되어있는 운동기구들을 보았어요. 이것은 저에게 피사체로, 그리고 여느 미술작품보다 더 나은 조형물로 여겨졌고, 산만하지 않은 배경 앞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조형물들을 사진이미지로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은 그 자체로 너무 많은 이야기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흑백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강한 색들이 있으면 거슬리기도 하고, 색으로 인해 이미지가 산만하게 느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업은 촬영한 상황의 이미지 자체가 색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동기구 연작이 다른 시리즈보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만의 시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면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의 개념에 있습니다.

블랭크: 사진 작품은 시리즈별로 모두 같은 장소로 보입니다. 주로 우연적 발견을 통해 촬영을 진행하는 편인지, 계획한 장소를 물색하여 촬영하는 편인지요?

정승일: 풍경이나 공간을 촬영한 작업들에서는 우연적 발견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을 항상 관찰하고 찾기 때문에 계획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블랭크: 드로잉은 전체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정승일: 드로잉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낼 수 없는 작업들을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드로잉 또한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제나 생각을 나

타낼 수 있을 때 행하는 하나의 표현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의 방식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블랭크: 작품에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정승일: 저는 계획한 작업의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료나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근 설치작업에서는 거울을, 이미지 작업에서는 사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의 주변 환경과 작품을 관람하는 '나'를 다각도로 반사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재료입니다. 거울을 사용한 작업을 통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끔 하는 내용이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걸모습이 비치지만 자신의 외면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 공간에 따라 건축적인 요소들을 다각도로 변형하여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셀 수 없이 많은 이미지들은 작품을 본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으로 작업을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작업의 재료는 저의 현재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줄곧 설치 위주의 작업을 했었고, 비디오가 재미있을 때에는 한동안 비디오 작업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시의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전시 공간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진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비교적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여서 좋아합니다.

블랭크: 작업을 계획할 때와 만드는 과정 그리고 완성한 후 작품에서 느끼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승일: 저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한 후에 완성된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떠올려보고, 그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서 정말 괜찮겠다 싶을 때 작업으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 과연 이 생각이 작업으로 이루어질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죠. 그리고 작업을 해놓고 나서도 이것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봅니다. 작업을 완성한 후에는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을 통해 더 큰 개념의 확장이 일어나면 스스로도 재미있고, 그 작업에 대한 애착이 커지기도 합니다.

거울 설치작업을 예로 들면, 생각을 거친 후에 스케치를 해보고, 작게 모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와 모형을 보며 다양한 생각으로 발전시켜봅니다. 거울 작업들은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보다 더 많은 생각의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각도의 이미지들이 반사되고 왜곡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블랭크: 작업을 텍스트로 나타낼 때 주로 대조/대비를 이루는 요소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밖에도 대립, 관계, 충돌, 연결, 해체에 관한 내용도 작품에 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일: 대조나 대비 양쪽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개념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알맞다고 생각되는 반대의 개념을 찾아내거나 하거나, 그로인해 상반되는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지점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과 같아요. 대립과 관계, 충돌, 연결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작업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표현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해체는 하나의 이미지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하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블랭크: 작품에 여러 개념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그간의 시리즈 그리고 개별 혹은 단일화된 여러 작

품들이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승일: 크게 보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의 방법들입니다. 미술은 생각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미술가는 크게 위대하지도,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하찮은 존재도 아닌, 창조적인 재능을 가지고 생각을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떤 대상이나 개념, 이미지를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작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관람객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의미를 또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게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제시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요. 미술가는 창조자라기보다 이미 창조된 것들을 재조합하여 또 다른 이미지들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없음)에서 유(있음)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에 창조는 아니지요. 그저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 작업들에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부터 났는지를 깊이 생각해볼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외면이 자신을 완성하는 부분 같지만 내면이 자신을 이루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부분도 본질적으로는 내면이고요.

블랭크: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승일: 이미지(형상)입니다. 작업을 이미지만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거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 설명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술은 이미지로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니까요. 미술에서 글이나 설명이 이미지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지요.

블랭크: 작업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요?

정승일: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건축가들과 협업을 자주 했고요. 구조나 공간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블랭크: 평소 좋아하는, 혹은 영향 받은 아티스트가 궁금합니다.

정승일: 좋아하는 미술가는 계속 변하지만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를 들 수 있겠네요. 영향을 받은 작가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셨고, 항상 영감을 주는 분이시죠.

블랭크: 블랭크 전시 중 가장 흥미로웠던 작가의 작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정승일: 이현무 작가의 작업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인 듯, 그림인 듯, 판화인 듯 한눈에 구별할 수 없는 기법과 고요한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블랭크: 앞으로의 작업 계획을 알려주세요.

정승일: 좋은 작업을 많이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개념과 이미지들을 계속 찾아가며 작업을 해나가고, 전시의뢰가 들어오면 전시 성격에 따라 흥미로운 작업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독일에서도 일 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전시를 가지려고 계획 중입니다.

블랭크: 이번 전시를 보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정승일: 작품의 이미지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어렵게 어떤 의미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